중생 이상향으로 인도, 수행 이끄는 상징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① 불교미술 속 말[馬] 이야기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다. 붉은 말이라고 하면 〈삼국지〉의 영웅 관우의 애마인 적토마(赤兎馬)가 생각나지 않는가? 말은 오랜 시간 인간과 함께해 왔기에 친숙하면서도 중요한 존재다. 말의 강인한 체력과 속도는 자동차 등장 이전까지 요긴한 육로 이동 수단이었고, 고대 전쟁에서 기병(騎兵)은 승리를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태자출성상(인도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팔상도 유성출가상의 태자와 말(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통도사 대웅전 수미단의 천마(조선 후기).

불국토의 안내자, 불교미술에 장엄된 말

그래서일까?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말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표현된다. 하늘을 나는 천마(天馬)와 페가수스부터, 바다를 가르는 용마(龍馬)와 히포캄푸스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에서 표현된 이런 모습은, 오랜 동반자인 말에게 이상적인 요소를 심어 주고픈 우리의 애정 어린 관심일지도 모르겠다.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이상적 세계관에서도 말은 인간을 태워 유토피아, 즉 극락(極樂)으로 바래다준다. 이는 사찰 구석구석 숨은 수많은 불교미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벽화부터 수미단에 이르기까지, 말은 중생을 이상향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표현된다.

싯다르타 태자의 애마, 칸타카

과거에는 말을 소유한 것 자체가 부와 권력을 상징했다.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는 예로부터 말을 소유하거나 타는 행위를 경계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멀리해야 할 대상이었던 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 이전인 싯다르타 태자 시절, 승마의 달인으로 아끼던 애마가 있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그린 팔상도(八相圖) 가운데 네 번째인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은 싯다르타 태자가 성 밖을 나와 출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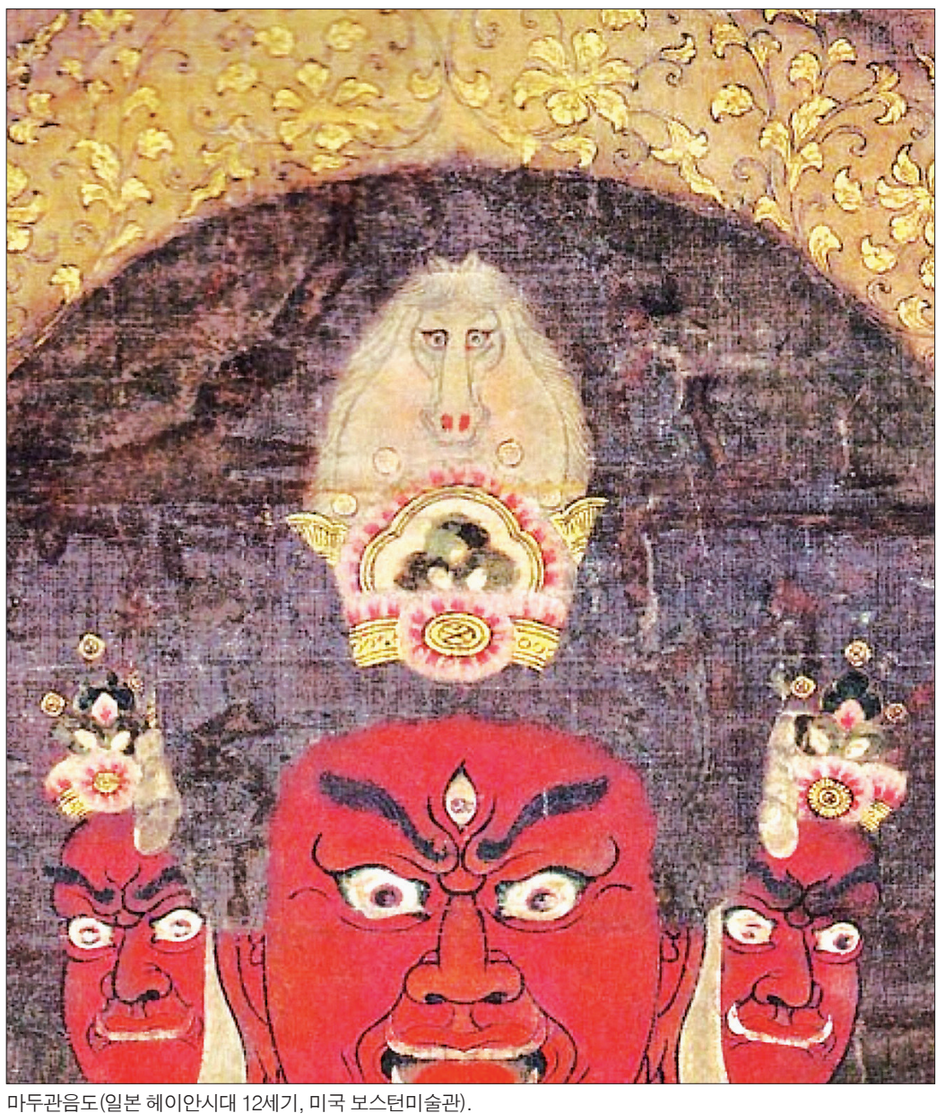
고통받는 인간의 근본적인 해방을 위해 출가를 결심한 태자는 마부 찬타카와 마구간으로 향했다. 백마 칸타카를 타고 성을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칸타카가 몸부림을 치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태자가 성을 떠나려는 걸 직감한 듯했다.

태자는 칸타카에게 "나고 죽음에 윤회하던 것을 이제야 끊으련다. 칸타카야, 나를 도와다오. 내가 도를 얻으면 결코 너를 잊지 않으마"라고 달랬다. 태자의 말을 들은 칸타카는 차분해지더니 말굽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길을 나섰다.

이윽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태자와 마부 찬타카, 그리고 애마 칸타카는 몰래 성을 빠져나와서는 밤새 달려 수행처에 이르렀고 영원한 이별을 했다. 주인을 떠나보낸 칸타카는 성에 돌아가지 않고 태자가 출가한 동쪽 문 앞을 서성이다가 눈을 감았다고 한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칸타카는 사후 브라만 계급의 인간으로 환생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뒤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태자와 칸타카가 헤어지는 장면은 인도 간다라 미술에서도 자주 표현되는 소재로, 세상 모든 것을 훌훌 털어 버리고 고행길에 나서는 태자와 사랑하는 주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충성스러운 말의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두관음도(일본 헤이안시대 12세기, 미국 보스턴미술관).

> 팔상도 유성출가상, 싯다르타 태자의 애마 이야기 담겨
> 반인반수 마두관음, 대자비심 발현 위한 굳은 각오 표현
> 〈법구경〉·〈보적경〉서 참된 수행의 길 매진 권면 뜻 담겨
> 말의 해 맞아 스스로 살피며 지혜·자비 삶으로 끌어 주길

중생 구제의 원력 '마두관음'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는 자비의 존재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모습을 취하는데, 열한 개의 얼굴을 지닌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부터 천 개의 팔을 지닌 천수관음(千手觀音) 등 그 형상이 어떤 보살보다 다양하다. 이러한 관세음보살 가운데 가장 독특한 사례는 바로 마두관음(馬頭觀音)이다.

마두관음은 힌두교의 하야그리바(Hayagrīva)라는 신에서 유래됐으며, 인도 신화 속 유지의 신 비슈누(Visnu)의 아바타로 알려져 있다. '말 머리'라는 뜻을 지닌 하야그리바는 이름 그대로 말 머리에 인간의 몸을 지닌 반인반수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 같은 도상이 불교로 전해져 마두관음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두관음은 다면다비(多面多臂)에 보관 또는 정수리 위에 말머리가 솟은 도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은 마두관음이 화가 난 표정의 분노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미술 속 분노상은 부동명왕(不動明王)과 시왕(十王) 등 죄를 지은 중생에게 벌을 주는 존재가 대부분이다. 관세음보살은 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는 자비의 화신임에도 험상궂은 분노상으로 표현된다니, 이는 어떤 의미일까?

사실 마두관음은 화내는 것이 아니다. 그 표정은 분노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자비심(大慈悲心)을 더욱 발현하기 위해 미세한 번뇌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나타낸다.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자연스레 인상을 찡그리는 것처럼 말이다. 더욱이 마두관음에 표현된 말 머리가 인간은 물론 축생(畜生)까지도 구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니 마두관음의 대원(大願)과 자비는 그 어떤 보살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불교미술에는 마두관음이 표현된 예가 드물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와 밀교가 유행한 일본 불교에서는 마두관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본에서 마두관음은 토착 신앙인 신도(神道)에 등장하는 신 우쓰노미야(宇都宮神)의 화신이기도 하다. 이는 신도와 불교가 합쳐진 신불습합(神佛習合)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신앙 체계에 영향을 미친 밀교의 영향력이 보이는 사례이기도 하다.

밀교에서 마두관음은 '대력지명왕(大力持明王)' 혹은 '신질금강(迅疾金剛)'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대력지'란 큰 힘을 지녔다는 뜻이고, '신질'은 신속하고 재빠르다는 뜻이다. 강한 힘과 빠른 속도를 지닌 말의 성격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이름으로, 강하고 빠른 능력으로 중생 구원에 앞장서는 마두관음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

수행 매진하라는 가르침 전해

이외에도 불교에서는 곧잘 사람의 행동을 말에 비유하곤 한다. 〈법구경(法句經)〉 '도장품(刀杖品)'에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권유할 만한 사람이니 마치 좋은 말에 채찍질하듯, 또한 훌륭한 말에 채찍질하듯, 도에 나아가되 멀리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보적경(寶積經)〉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말이 있느니라. 채찍을 휘두르는 그림자만 보아도 내달리는 말이 있고, 채찍이 털끝을 스칠 때 달리는 말이 있고, 몸에 채찍질을 당해 아픔을 느낄 때 달리는 말이 있고, 아픔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때려야 달리는 말이 있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다. 이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사람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채찍이 된다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참된 수행의 길에 매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처럼 불교미술과 경전에 등장하는 말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수행의 상징이다. 말의 해를 맞아 게으름과 타성을 내려놓고, 작은 경책에도 스스로를 살피며 마음을 다잡아 보게 된다. 말이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듯, 올 한 해 우리 삶을 지혜와 자비의 길로 힘차게 끌어 주길 발원해 본다.



김용덕 작가

2026 병오년

신발의 최소주의와 자연주의를 추구한다!

'발의 본래 감각'을 되찾는 리센스(Re-sense)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New

~~120,000원~~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홍재화 대표

모바일 구매 QR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댐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제조원 필맥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